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평창

2017년 10월 12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0. 12.(목) 오전 10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10. 11.(수)	담당부서	투자유치과
담당과장	김재준 과장 (044-203-4080)	담 당 자	송상현 사무관 (044-203-4086)

2017년 3분기(누적) 외국인직접투자 동향

- '17. 10. 11(수) 배포 -
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본 동향 자료는 산업부 및 코트라(KOTRA)의 외국인투자통계를 바탕으로 **2017년 3분기**(누적) 외국인직접투자를 분석한 자료임

○ 신고금액 및 도착금액은 **9월 30일까지의 실적 잠정치를**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, **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**함

○ 산업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**매분기마다 발표**되며, '17년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**'18년 1월 중순경 발표예정**

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, 견고한 외국인투자 장기상승세 유지

- 신고 135.9억 달러 (△9.7%), 도착 80.0억 달러 (+9.1%) -

1. 종합 평가

◈ '17년 3분기(누적)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**9.7% 감소**한 **135.9억 달러**, 도착기준으로는 **9.1% 증가**한 **80.0억 달러**를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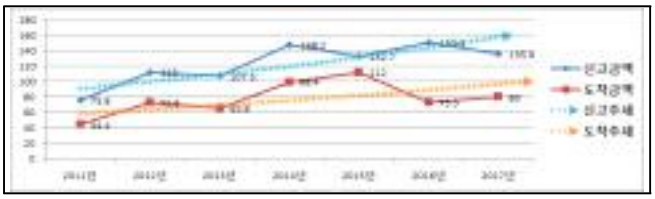
◈ 상반기 감소세를 보인 도착금액이 **증가세로 반등**하면서, 외국인투자의 **장기 상승추세를** 견고하게 유지

□ 이러한 실적은 **지정학적 위험, 신보호무역주의 확산, 미국 금리인상** 등 대내외 정치·경제환경이 **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**에서 외국인투자의 **장기적 상승세**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

○ 특히, 미·**중·일 주요국으로의** 외국인직접투자(**FDI**)**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***에서 신고·도착 모두(3분기 누적) **1962년 통계집계 이후 역대 3번째 실적을 달성**

* 주요국 외국인직접투자(IFDI)의 감소세('17.1~6월): 미국 △48.8%, 중국 △5.4%, 일본 △63.7%, 유럽연합(EU) (+22.0%)

【 3분기(누적) **외국인직접투자** (단위 : 억 달러) **】**



□ 3분기 외국인투자의 주요특징으로 상반기 감소세를(△4.4%) 보인 **도착금액**이 **3분기에**(누적) **증가세**(+9.1%)로 **반등한 것으로**

* 3분기(7.1~9.30) 기준도 전분기('17.2Q)대비 24.1%, 전년동기대비 31.6% 각각 증가

○ 이는 최근의 외교안보적 상황에도 외국인투자가의 **우리경제에 대한 신뢰가 여전**하며, 투자가 **계획대로 원만하게 이행**되고 있는 것을 의미

2. 국가별 동향

◈ **(상승·보합세) 일본**은 **4분기 연속증가**하며 분기별로는 **'12.4Q이후 최고치**, **미국**은 신고는 보합세이나 **도착이 증가세를 보이며 상반기 상승추세** 지속

◈ **(감소세) 유럽연합(EU)는** 1억 달러 이상 **대형 인수합병(M&A)형 투자감소**(△63.1%)로 감소, **중국**은 전체 해외직접투자액(OFDI) 감소의 영향으로 감소 * **중국 외 중화권**은 서비스업 중심 증가(+6.1%)

1 미국 (신고 29.0억 달러 △5.5%, 도착 8.2억 달러 +5.4%)

* 업종별 증감율(신고) : 제조 12.3억 달러 (+50.1%), 서비스 16.8억 달러 (△25.6%)

○ 금리인상(3·6월), 세제개편안, 국내복귀(리쇼어링) 정책의 우려에도 불구 신고는 소폭감소(△5.5%)에 그쳤고, **도착이 증가세를 보임**(+5.4%)

* 미국 3분기 누적 도착: ('16년) 7.8억 달러 → ('17년) 8.2억 달러

○ 업종별로, **화공**(+128%), **전기·전자**(+3,859%), **자동차**(+2.6%) 증가세에 힘입어 제조업(+50.1%)은 증가했으나, 금융·보험(△28.0%) 등 서비스업(△25.6%)은 감소

- 다만, 클라우드 컴퓨팅, 사물인터넷(IoT),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, 저온저장시스템(콜드체인) 등 **고부가가치 기술력**을 지닌 미국기업의 **한국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시장을 창출**하는 점은 긍정적

2 일본 (신고 16.9억 달러 +90.2%, 도착 7.6억 달러 +28.9%)

* 업종별 증감율(신고) : 제조 9.1억 달러 (+55.3%), 서비스 7.6억 달러 (+156.3%)

○ **4분기 연속 증가세**를 보이며 **일본발 외국인직접투자(FDI)는 본격상승세**, 분기 실적도 전분기('17.2Q) 대비 **큰 폭으로 증가**(+110.5%)해 **'12년 4분기 이후 최고치**

* 일본 분기별 (신고, 억 달러) : ('16.3Q) 1.9 → (4Q) 3.6 → ('17.1Q) 4.07 → (2Q) 4.1 → (3Q) 8.7

○ 고령화에 따른 **일본 내수시장 한계에 대응**하고 **국내기업과의 합작**을 통한 **세계시장 진출**을 위해 한국투자를 확대하는 추세

- 특히 올해는 제조업투자(반도체, 화학)뿐 아니라 **콘텐츠**(게임), **정보기술**(IT), **플랫폼**(IoT·소프트웨어) 등 **4차 산업혁명 관련** 투자*가 본격화된 것이 특징

* ①온라인·모바일 게임, ②위치기반IoT+공유 소프트웨어, ③가상현실(VR) 콘텐츠 플랫폼 등

3 유럽연합(EU) (신고 31.5억 달러 △40.7%, 도착 30.8억 달러 +1.4%)

* 업종별 증감율(신고) : 제조 12.5억 달러 (+18.5%), 서비스 18.5억 달러 (△53.4%)

○ **"조세회피처를 통한 소득이전"**에 대해 국제공조가 강화됨에 따라 유럽연합(EU)을 통한 **1억 달러 이상 대형 인수합병(M&A)형 투자**가 크게 감소한 것이 **주요 원인**

* 유럽연합(EU)발 1억 달러 이상 인수합병(M&A)형 투자 : ('16.9월) 36.9억 달러 → ('17.9월) 13.6억 달러 (△63.1%)

○ 유럽연합(EU) 경기회복에 따른 **역내투자* 증가(인수합병(M&A))**, 브렉시트 협상의 불확실성, **유로존 양적완화(QE) 축소** 가능성 증대 등으로 역외투자 유인이 감소

* 올해 상반기('17.1H) 역내 (Europe to Europe) 인수합병(M&A) Deal 규모는 '16년 전체인 1,500억 달러 대비 70%이상 증가한 2,500억 달러 수준 (블룸버그, '17.7월)

4 중화권 (신고 36.4억 달러 △19.5%, 도착 19.7억 달러 △9.2%)

* 업종별 증감율(신고) : 제조 4.5억 달러 (△70.0%), 서비스 1.61억 달러 (△67.5%)

"[1]중국外 중화권(싱·홍·말·대) **(신고 30.4억 달러 +6.1%, 도착 18.4억 달러 △2.6%)"**

* 업종별 증감율(신고) : 제조 2.6억 달러 (△67.2%), 서비스 27.7억 달러 (+33.6%)

○ 홍콩·싱가폴·말레이시아·대만 등 **중국외 중화권 국가는 서비스 부문 중심으로** 투자가 증가*하였으나,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부진

* 중국 제외 중화권 : 금융·보험(+106.8%), 음식·숙박(+606.4%), 부동산(+7.8%) 투자 증가

"[2]중국 (신고 6.1억 달러 △63.4%, 도착 1.3억 달러 △53.7%)"

* 업종별 증감율(신고) : 제조 1.9억 달러 (△73.2%), 서비스 4.0억 달러 (△55.5%)

○ 중국은 중국정부의 **"해외직접투자 지도 지침"***('17.8월) 및 외환보유고 유지를 위한 **외환송금 규제** 등의 영향으로 대한(對韓)투자 감소

* 해외투자대상을 ①장려, ②제한, ③금지로 구분하여 **가이드라인을 명문화**하고, 조세·외환·보험 등 관련제도 정비와 **"해외투자블랙리스트"** 작성을 통해 실효성 확보(中 국무원)

- **"제한"**업종으로 지정된 **"부동산, 호텔, 엔터"** 분야 비중은 대한(對韓) 투자의 33%로('13~'17.9월) 파급효과가 큼 (17.3Q, 부동산 △63%, 음식·숙박 △87.4%)

○ 중국의 **해외직접투자(OFDI)**는 한국뿐만 아니라 작년 3분기 이후 **전반적으로 감소세**를 보이고 있으며, 이러한 추세는 **최근까지 지속됨**

* 중국의 해외직접투자(OFDI) : 687억 달러 (△41.8%) ('17.1~8월, 중국 상무부)

3. 업종별 동향

◈ **(제조업)** 주력산업 일부가 **소폭감소** 했으나 **평년 수준의 규모를 유지**했으며, 내수시장 확대에 따른 **유망분야(고급소비재)** 및 **신산업(바이오)** 투자가 큰 폭 증가

◈ **(서비스업) "디지털 경제"** 및 **"4차산업혁명 관련 분야"**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으며, **"스타트업 생태계 구축"**에 대한 외국인투자가의 관심 증대

1 **제조업**은 전년동기 대비 3.5% 감소한 41.6억 달러을 기록 (신고기준)

* 제조 : 신고 41.6억 달러 (△3.5%), 도착 20.3억 달러 (△6.1%)

○ 금속(+135.4%), 의약(+42.1%), 식품(+34.7%) 분야가 높은 증가세를 시현

* 알루미늄, 바이오의약품, 기능성 건강음료 등 내수가 급증하는 분야 투자증가

○ **주력산업**에 대한 투자는 **일부 감소**[1]하였으나, 전세계적인 외국인직접투자(FDI) 하향세[2]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의 시장 진입장벽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(전기·전자)

1) 화공(11.3억 달러, △4.0%), 기계·장비(2.5억 달러, △24.0%), 전기·전자(7.0억 달러, △28.0%)

2) 전세계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(FDI '11→'16년, 억 달러): 화공(586 → 241), 기계·장비(176 → 101), 자동차 (837 → 551) (UNCTAD)

2 **서비스업**은 전년동기 대비 8.8% 감소한 93.3억 달러를 기록 (신고기준)

* 서비스 : 신고 93.3억 달러 (△8.8%), 도착 59.5억 달러 (+17.8%)

○ 우수한 "자유무역협정(FTA)네트워크"를 활용하는 물류투자가(+104.5%) 증가했고, 정보기술**(IT) 서비스, 게임, 콘텐츠** 등 **디지털 경제시대**에 부합하는 신시장 창출형* 투자 활성화

* ① Y사 (O2O(Online to Offline) 플랫폼, 0.85억 달러), ②K사 (모바일 플랫폼(IoT+빅데이터+GPS, 3.5억 달러), ③L사 (모바일게임 개발, 1.1억 달러)

- 다만, 도소매(△22.4%), 금융·보험(△37.3%), 사업서비스업(△26.4%)은 감소

○ 한편, **4차 산업혁명** 관련기술(IoT, 핀테크 등)을 활용해 기술력을 지닌 유망 벤처·스타트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**"스타트업 생태계 구축"** 투자 확산

* ① K사 (모바일결제(핀테크+빅데이터), 2억 달러), ②W사 (스타트업 공간공유 플랫폼, 0.5억 달러)

○ 이는, **"대형·제조업·그린필드"모델** 외, **"소규모·서비스업·스타트업"**에 대한 투자가의 높아진 관심이 **새로운 외투모델로 가시화**되고 있음을 의미

4. 유형별 동향

◈ **(그린필드형)** 서비스업의 증가세를 바탕으로 보합세를 보이며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 견조한 추세를 보임

◈ **(인수합병(M&A)형)** 선진국 중심의 인수합병(M&A)시장 확대와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감소

1 **그린필드형 투자**는 **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 부문**의 증가세(+9.1%)에 힘입어 **보합세**(△0.3%)를 보이며 **107.9억 달러 기록** (신고기준)

* 그린필드형 투자 : 신고 107.9억 달러 (△0.3%), 도착 50.7억 달러 (+4.9%)

○ 지정학적 위험에도 불구 **부지매입 및 공장·사업장설립의 장기적 투자**에 대해 투자가는 변함없는 투자의향 표명(신고)과 투자이행(도착증가)을 시현

* ① 그린필드형·제조 : 30.5억 달러(△7.7%), ② 그린필드형·서비스 : 77.0억 달러(+9.1%)

2 **인수합병(M&A)형 투자**는 유럽연합(EU) 등 **선진국 중심의 인수합병(M&A)시장 활황**의 영향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**33.9% 감소한 27.9억 달러**을 기록 (신고기준)

* 인수합병(M&A)형 투자: 신고 27.9억 달러 (△33.9%), 도착 29.3억 달러 (+17.3%)

○ 미국 금리상승 여파에 따른 자본조달 비용 상승우려, 조세회피처에 대한 국제적 공조의 강화영향으로 인수합병(M&A)형 투자의 급격한 감소 발생

* ① 인수합병(M&A)형·제조 : 11.1억 달러(+10.2%), ② 인수합병(M&A)형·서비스 : 16.3억 달러(△48.6%)

5. 향후 정책 방향

□ 북핵 등 지정학적 위험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,

○ **①일자리창출효과가 큰 분야**중심으로 고위급 기업설명회(IR)실시, **②**외국기업 및 투자가의 **우려를 불식하기위한 국내외 소통강화**, **③일자리 중심**으로 **외국인투자 관련 제도**를 개편해 나갈 계획

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송상현 사무관(☎ 044-203-408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향후전망 및 정책방향**

1 **(향후 전망)** 선진국 중앙은행의 **양적완화 축소 본격화**(美 연준, ECB), **연내 美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, 브렉시트 협상 불투명**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나,

○ 글로벌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①대형 M&A딜 성사, ②신산업·유망산업 투자유치가 호조세를 보이며 증가할 가능성도 병존

* UNCTAD도 '17년 전세계 FDI는 전년대비 5%내외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

2 **(정책 방향)**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의 장기적 상승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계획

① 고위급의 주요국(美·日 등) 방문계기 라운드테이블, 1:1 심층면담, 설명회 등 **다양한 형태의 투자협력기회 모색**

* (4분기 IR계획, 잠정) 일본(신소재, 로봇, 에너지), 유럽연합(EU)(석유화학, 바이오), 중화권(금융) 등

-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**"그린필드형·서비스업"** 투자와 **"스타트업 생태계 구축"**을 위한 외국인투자를 집중 유치할 계획

② **외투기업과의 고위급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**하여 소통을 강화하고, **국제행사를 적극 활용**해 한국에 대한 투자가의 우려를 불식

- [1]제20차 RCEP 공식협상 연계 **"투자유치 설명회"** 개최 (10.27(金), 인천 송도)

* 최근의 지정학적 리스크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**16개국 정부대표단**을 대상 **한국 투자환경의 안정성**과 **한국정부의 정책의지**를 적극 설명

- [2]**"글로벌 FDI와 한국"** 투자유치 세미나 개최 (10.17(火) 15:00, 서울)

* 주요 외국인투자가, 지자체,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①글로벌 FDI 트렌드 분석, ②성공사례 공유를 통해 외국인투자의 전략을 공유하고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

③ **외국인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제도를 전면 개편** (연말)

- 외국인투자 **3대 인센티브**(조세·입지·현금지원)의 **지원기준**을 금액중심에서 **고용효과 중심**으로 **전면 개편**해 일자리 창출 유인을 제고

* ①(세제) 신산업·제조·신성장기술 및 대규모 고용시 확대지원, ②(입지) 임대료 감면대상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확대, ③(현금) 수혜요건 적극검토 등